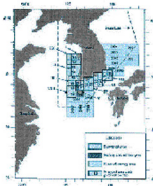


연구전산망 사용자 연구실 방문 : 한국자원연구소 서상용 박사

디딤 - 연구개발정보센터 초고속정보망기술지원실 연구원 김 의실(E-mail : eskim@hpcnet.net.kr)



전세계적으로 볼기 시작한 인터넷의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확산되어 우리들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 아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열풍은 우리 과학기술 자들에게도 최신의 과학기술경보와 첨단 High-Tech 분야에 활용되면서 과학기술·교류의 장으로 활용되 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 따라 연구전산망에 많은 관심과 열 쟁을 가지고 연구전산망을 아끼시는 한국자원연구소 의 서상용 박사를 만나보았다.

문 : 서 박사님께서 연구전산망을 처음 사용하신 계기는 무엇이었지요?

답 : 1992년도 대학풍·지중 단면도·전산처리시 cray2s를 사용하면서 e-mail의 편리성을 실감하였지 요. 당시 cray의 소프트웨어 Geovector는 프랑스 CGG사에서 공급한 것이었는데 우리 장비와의 호환 성 문제 때문에 그곳에 직접 문의할 일이 많았었습니 다. 당시 국외와 e-mail이 가능한 컴퓨터는 cray2s와 seram밖에 없었지요. 어쨌든 e-mail 덕분에 어이

까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래서 연구전산망이 e-mail에 아주 편리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프랑공대 교수 로 있는 제 초등학교 동기로부터 anonymous ftp 사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로는 상상 할 수 없었던 각종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었지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광고와 음란물등 잡 다한 것들이 섞여서 실감이 안나시겠지만 당시에는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의 90% 이상이 귀중한 학술 자료 등이었습니다. 인터넷과 zopher와 archie등을 접 하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흥분감에 취하곤 했지요. 곧바로 유즈넷을 접하면서 전문가 집단이 토론 내용 을 즉시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인터넷의 전문 가 집단은 대부분 컴퓨터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제 가 전공하는 지질학과 지구물리학의 전문가들의 최 근 관심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그들과 어울려 질문과 답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독자적인 뉴스시버를 운영하기 시 작했는데 그때 시작한 뉴스시버가 newsgsmr.kr 입니다. 아마 연구전산망 뉴스시버 news.krcnet.kr 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국내 뉴스시버중 하나일 것 입니다.

문 : 연구전산망을 사용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답 :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대부분의 자료가 외 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외라인의 속도가 느 러서 엄청 큰 그림을 포함하는 웹은 거의 접속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저는 그럴듯한 용 제야지가 없지요. 연구망 사용자 관련하여 새로 사형 이 뭐나가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연구전산망 가입 기관들중 대부분은 그래서 그런지 연구전산망과 상 업망 2개의 회선을 사용하더군요. 저희 자원연구소는 가난해서 그런지 아직도 연구전산망 한국에만 가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화비율(초실화)이 시키신다고하니 걱정이 많습나다.

문: 연구권선안양 많이 마까주시고 조언을 하여 주시고 개선토대 연구권선안양의 발전을 위해 연구권선안양에 대한 비려는 시합이 있디안?

답: 고가의 해외라인을 낭비없이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네트워크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광고와 음란물이 연구권선안양 해외라인을 통해 오고가지 못하도록 차단해야하지요.

특히 요즘은 문자되는 제3차 메일 공격을 이용한 스팸 메일은 외국인들이 주로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돈들어 속맞는 현상입니다. 컴퓨터 주인의 잘못이 크지만 카심 키권의 네트워크 담당자들과 연구권선안양 사무국등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슈퍼컴퓨팅사업단과 함께 국내 유일 무이한 과학기술 권선안양 연구소입니다. 연구권선안양 사용자들에게 항상 친절하신 표양화 소장님, 연구권선안양 운영과 코뎀화에 열성적인 연구권선안양 staff분들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국내에는 상용 인터넷 서비스 키권과 공공 인터넷 서비스 키권이 여러개입니다. 마는 연구권선안양 만큼 기술력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레야요. 역사와 전통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사상용 박사는 고등학교 3학년과 1학년에 다니는 남매를 두고 있으며, 1974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한국자원연구소 석유해지자연구원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며, 1982년부터 동등히 석유탐사 지층면도 권선안양 소프트웨어인 Gembit를 개발하여 판매함에 만든 것이 씨권 298로 관련 기관에 소프트웨어 등록등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

으며, 현재는 한국가스공사와 동해 대륙사면의 하이드레이트(hydrate) 탐사자료를 분석하는 연구와 광원의 전기연구소에서 GPR(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상용 박사님이 권선안양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서 박사는 시스템공학연구소(구) 시결인 1996년부터 약 2년간 제 2대 연구권선안양 실무자협의회 의장을 한바 있으며 연구권선안양 업무를 총틀며 도와 im-17.2-kr@ 메다용 뉴스서버 소프트웨어(1997-1999), 공개소프트웨어 연구망 코넷 및 국내 주요대학의 뉴스리더용 소프트웨어, dna-17.2-kr: 피다용 뉴스서버 소프트웨어(1997-1999) - 공개소프트웨어, db-3.0: NN 뉴스서버 소프트웨어의 DB 프로그램(1996) - 공개소프트웨어, sendmail-8.9.3H: 한글 sendmail - 공개소프트웨어 등 많은 최신 기술을 개발하여 연구권선안양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상용 박사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립지질광물연구소 연구요원, 한국자원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